

특별기고

선문답의 병폐

서울 육조사선원장 현웅 스님이 실참없는 법거랑의 위험성을 지적한 '선문답(禪問答)의 큰 병폐'란 기고문을 보내왔다. 최근 몇몇 인터넷 카페에서 초보자가 선문답을 흉내내는 일이 적지 않은 점과 일부 스님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선문답을 그대로 인용하는 병폐를 지적한 글이다.

언제부터인가 선문의 지도자들은 찾아와 묻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거침없이 불법의 대의를 말해주곤 해왔다. 이런 전통은 후학들에게 변죽이 아닌 깨달음을 경험시켜 주기도 했고 많은 자성의 계기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초(當處)에서 그 때 그 때 경계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난 일들이 많았고 또 묻는 자와 답하는 자 사이에 절대적인 믿음(信)이 있어왔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선(禪)은 이 순간을 떠나지 않고 필립 살아있는 것이기에 지혜 또한 경계 경계마다 비추어지는 대로 중생의 미혹된 습을 칼날처럼 베어버렸던 것이다.

입에서 나온 선문답과 삶속 경계가 따로 있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선문답을 기록한 선어록들은 선에 대해 굶주린 후학들의 눈에 배가 고파서 주림을 채우려는 법안 양자가가 해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은 가끔 본인 자신도 모르게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면 선이 잘된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먹통이다. 라는 문화의식으로 진전되면서, 의리선(義理禪)과 삶 속에 살아있는 선이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병폐를 낳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대 사람들이 귀한 문헌을 의지해 많은 도움을 받아 약이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선문답 중독증'에 걸려 참 지혜를 놓치고 업식을 끊지 못한 채 의리선으로 살림을 삼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것들은 약이 된 것 못지 않게 병으로 남게 되어 정법을 깨닫는데 혼란을 주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 공안(公案)집에 '정병을 건드리지 말고 물을 가져오너라'란 문답형 법문에서 '정병'이란 공경이

다. 이 경계를 손대지 말고 물을 가져오라 하니 깨침이 오기 전에는 담벼락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다. 그런데 선문답을 잘 해내는 사람들 중에는 쉽게도 답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일상생활의 경계에서는 그 경계를 안 건드리고 살 줄 모르면서 답은 경계가 없는 도리를 잘 해내니 선문답만을 들어보고는 구별이 안 된다는 점이다.

대개 요즘은 바른 믿음을 갖추어서 법을 묻는 사람도 드물고 또 선을 지도하는 사람도 경계 속에 그렇게 자유스런 사람도 드물다. 입으로는 공안 문답에 답이 적혀 나오지만 본인이 경계에 처하게 되면 품팔이답답 못해서 시끄러운 경계를 사양하듯이 피하려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옹기 있는 것이 일은 저질러 놓고는 머리와 꼬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 엉뚱한 결과만 남겨놓고는 떠나 버리는 경향도 있다.

수행자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계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진실이 바탕이 된 양심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입에서 나온 선문답과 삶속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따로 있다고 보면 불교가 왜 필요하며 이런 선문답은 어디에 써먹자는 것인가?

이런 책이 나지 않았을 때 선은 선문답 속에 묻혀 들어가 사람이 사는 것과 아무 쓸모 없는 것으로 전락 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위들은 옛 선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참 공부를 했다면 옛사람이 했던 '할(교합)기(기)나 '방'(몽동이집)이나 어묵이나 다 집어던지고 경계 속에 살아있는 눈을 갖추어 사람 속에 있는 부처가 나오도록 나부었으면 한다. 옛 불의 형식을 갖추고 편안할 속에 있기 보다는 틀을 벗어나 지금 살아있는 문답이야말로 선이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겠는가.

현웅(육조사선원장)



'복혜쌍수' 중심으로 禪 지도하는 영흥 스님

"안으로 부지런히 주인공을 찾고 밖으로 남을 도와 주는 일, 즉 복혜쌍수(福慧雙修)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0만 여권의 불서와 백만 불에 가까운 호신불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수장사해 온 스님. 남모르게 참된 방생을 실천하며 권해 온 스님. <참 생명> <남승가> <해탈> <하늘복> 등의 선어록을 펴내고 인연 닿는 스님들에게 간화선을 독창(獨創)으로 지도해 온 스님.

충북 진접 만뢰산 아래 불보굴(佛巖窟)에 주석하는 영흥 스님을 본 것은 <남승가>라는 선어록을 우연히 보게 된 울 초였다. 몇 달 뒤 하늘복 출판사에서 스님을 만나 평소 의문하던 선(禪)에 관한 질문들을 쏟아낸 후 공주 금강둔치, 조계사 경내에서 법문을 듣기도 했다.

스님과의 인연을 통해 이름없는 작은 암자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 결코 보살행이 아닌 공부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참선과 보살행을 따로 실천하는 영흥 스님의 평소 지론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행을 겸해야 한다는 '복혜겸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六波羅蜜) 중 마지막 지혜바라밀 하나만 빼 놓고는 모두 공덕을 닦는 수행입니다. 이 다스리기 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을 함께 닦는 것이 곧 복혜쌍수이죠."

조계종 중정을 역임한 해암 스님이 평소 "지

혜를 닦고 복을 짓는 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다들 빗만 지고 살고 있다"고 강조했던 '복혜쌍수'라는 말은 자칫 마음 공부에만 몰두해 보살행을 소홀히 하기 쉬운 수행자들이 귀 기울여야 할 공부지침이기도 하다. 때문에 영흥 스님의 참선 공부에 '복혜쌍수'의 원리는 여지없이 적용된다.

"선근공덕을 끝없이 지으면서 화두를 여여부동하게, 씩없이 성성적(惺惺寂寂) 적적(寂寂)하게, 강물 흐르듯 유유하게, 어린 자식 어머니 생각하듯 간절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20대 초반, 망월사에서 춘성 스님의 벽력같은 고함 소리에 득력(得力)했다는 영흥 스님은 1974년 백양사에서 서울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한 뒤 청담, 벽초, 회암, 전강, 경봉, 향곡, 서운, 월산, 구산, 고암, 서암, 성수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참문해 법거랑을 했다. 제방선원과 토굴에서 정진하다 느낀 것은 절제와 해제가 따로 없이 일상 속의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 없는 공부를 일여(一如)하게 지어가야 한다는

지혜 구하고 복 지어야 참 공부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둘 아닌 하나

참방생은 '산에 산이 있는 이치' 그대로

것. 여기서 영흥 스님이 말하는 '일여'의 공부는 성철 스님의 사상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스스로 돌이켜 보아서 자기 본각경계가 동정일여(동중일여) 숙면일여(오매일여) 입태일여(육도일여) 만행일여의 자수용삼(자수용삼)으로써 안팎으로 내외명철하고 쌍자쌍조하여 일체중생과 일체부처가 온 전체로 낱알이 똑같이 여여부동하게 본래대로 본분본락 본분진락 본분무애자재(해아) 향상일로의 공부입니다."

영겁불퇴전의 신심으로 복혜쌍수의 실참 본행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영흥 스님. 6월 15일 조계사에서 스님을 만나 구체적인 마음 공부에 대해 질문했다.

"어떤 것이 조사관입니까?"

"이렇고 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그 속으로 당장 들어가 보세요."

"오로지 모를 뿐입니다."

"오로지 모르는 그것을 당장 보세요."

"모르는 이외에 댄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이 부처가 부처를 찾는 방법입니다. 즉 마음을 바로 가리키 성품을 보게 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견성성불이죠."

평소에 '인간 방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행의 방편으로 방생을 실천해 온 스님에게 '참 방생'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다함께 홀로 서로 통해 온 법계를 이루고 동서남북에 해와 달을 쌍으로 띄우며 낮에는 꽃을 심고 꽃을 가리키고 밤에는 마니주 뿌리고 마니주 굴리구나. 하! (영흥 스님의 노래)"

"참 방생이란 산에는 산이 있고 물에는 물이 있는 이치 그대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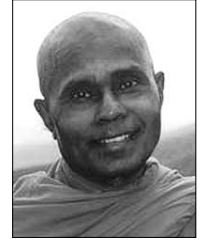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생은 상생이요 곧 해탈이요 성불이요 본불입니다. 일체 불보살과 일체 화엄성종과 일체 중생의 무한 생명자재요, 자비요 본행이요 무량부덕이요 무량공덕입니다. 중생들의 가슴에 탐진치를 비우고 계정해를 담아서 참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맑은 삶을 구현해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것이 넘치는 풍요로운 세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불자들에게 늘 지혜와 공덕을 함께 닦아나갈 것을 당부하는 영흥 스님. 항상 마음의 평안과 세계의 평화를 함께 발원하는 스님은 "천하는 천하에 맡겨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그대는 그대에게 맡겨 그대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한다.

"다함께 홀로 서로 통해 온 법계를 이루고 동서남북에 해와 달을 쌍으로 띄우며/ 낮에는 꽃을 심고 꽃을 가리키고/ 밤에는 마니주 뿌리고 마니주 굴리구나. 하!" (영흥 스님의 노래)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헤네폴라 스님 초청 위빠사나 수행

서울 보리수선원(원장 부다라카타)은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안성 활동사에서 '헤네폴라 구나라타 나 스님 초청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갖는다. 위빠사나 수행의 저명한 지도자인 구나라타 나 스님은 1968년 상좌부(Theravada) 스님

으로써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불교와 수행을 가르쳤다. 그 후 미국 워싱턴 D.C 불교 위하라 협회의 총재를 역임했으며, 아메리카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수행과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접맥시켜 수행을 지도하는 스님은 아메리카대, 조지타운대, 메릴랜드대에서 불교를 가르쳤다.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주 슈반도어밸리에 있는 바와나 숲속 집중수

행처(www.bhavanasociety.org)의 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캐나다,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에서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번역된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위빠사나 명상(Mindfulness in Plain English)>을 비롯 <The Jhanas(선정)> <Come and See(와서 보라)>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수련회 참가비는 1주 15만원, 2주 30만원, 3주 40만원. (02)517-2841 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Binmaum.org with text: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이론 없는 수련은 위험 수련 빠진 이론은 공허' and website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Jibub's Back Self-healing Method) featuring a man, product images, and promotional text.